

영화 <게이샤의 추억>을 중심으로 본 게이샤복식 표현에 관한 연구

김 희 정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A Study on Geisha's Dress Expressions in the Movie Focused on <Memoirs of a Geisha>

Hee-Jung Kim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7. 10. 18. 접수; 2008. 1. 3. 채택)

Abstract

Geisha's gorgeous kimonos and grotesque make-up was the object of envy to Japanese women. There is a line in the movie <Memoirs Of A Geisha> like "Kimonos to the Geisha is the same as colors to the painter." Likewise, splendid patterns and colorful kimonos were an indispensable method or symbol for showing their artistic accomplish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cept and origin of Geisha and their dress and decoration, analyze the dress of the people which appear in the movie, <Memoirs of A Geisha>, arrange the expression of Geisha's dress as a movie costume,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 dress by the career of Geisha and look back the disappearing aesthetic sense of Geisha.

First, since Geisha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Kyoto in 1751, it has become the world-wide representative of Japanese woman's images so that its existence on itself has become the tradition.

Second, Geisha created fashion of various clothes, adornments, and hair styles as a creator of the popularity.

Third, the strict regulation without exception is applied in Geisha's clothing, make-up, and motion tuned Samisen, Japanese traditional strings, and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ir hair style and dress by age of Maiko.

Fourth, it is famous for unique make-up that Geisha makes up their faces, necks, and shoulders white, newly paints eyes, nose, lip line like drawing a picture in a pure white paper. Geishas put a little make-up as they have a higher position.

Fifth, a heroin, Chiyo, shows clothing as a maid, an apprentice Geisha-Maiko- and a formal Geisha according to time flow. The length of kimono, textures, and hair decorations are longer, more splendid, and are more various as time goes. On the other hand, her make-up is lighter.

Key Words: Geisha(게이샤), Maiko(마이코), Dress expressions(복식표현)

Corresponding author ; Hee-Jung Kim

Tel. +82-11-241-8117, Fax. +82-2-760-4484

E-mail : heejee05@hanmail.net

I. 서론

일본에는 게이샤(藝者)로 알려진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 예술가들이 살면서 심미적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인 카류카이(花柳界)라는 공동체가 있다. 카류카이는 ‘꽃과 버드나무의 세계’라는 뜻으로 게이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의 아름다움을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꽃을 닮았고 공손하고 나긋나긋하면서도 강하다는 점에서는 버드나무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¹⁾

게이샤의 화려한 기모노와 그로테스크한 화장이 한 때 일본 여성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과는 달리 대부분의 게이샤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경우가 많고 이들은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에도(江戸) 중기이후 풍속을 변화시킨 게이샤는 카부키 배우와는 비교가 안되며 풍속의 전통 보유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에도말기 도쿄(東京) 변화가의 풍속을 전하고 있다.²⁾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부터 게이샤는 근대적으로 세련되고 고급화된 것이 사실이며 근대복장의 한가지인 엘리트의 추이를 더듬는다는 의미로도 게이샤는 중요한 화상(畫像)의 소재이다.

에도시대에 성행한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繪)에 묘사되어 있는 여성의 대부분도 게이샤와 아소비온나(遊女)이며 또한 메이지(明治)시대에 크게 유행한 ‘미인그림엽서’의 모델도 당시 도쿄와 교토(京都)에서 인기 있던 게이샤였고 당연히 그 패션은 최신유행이었다.

20 세기초 만해도 약 8 만명의 여성이 게이샤에 종사했지만 이제는 약 1 만명 정도의 게이샤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며³⁾ 이제 일본에서 조차 게이샤의 예술을 제대로 평가하려는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게이샤에게 기모노는 화가에게 물감과 같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화려한 문양과 다채로운 색상의 게이샤 의상들은 게이샤가 그들의 예능을 펼쳐 보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자 상징인 것이다.

이렇게 풍속과 패션에도 영향을 미친 게이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더욱이

게이샤의 복식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게이샤의 개념과 유래, 복식과 장식등에 대해 고찰해보고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분석하여 영화 의상으로서의 게이샤복식 표현방식을 정리하여 게이샤의 경력에 의한 복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사라져가는 게이샤의 미의식을 돌아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게이샤의 개념과 유래, 복식과 장식등은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영화의상은 아서 골든(Arthur Golden) 원작 소설을 참고로 하며 2006년도 영화 <게이샤의 추억(MEMOIRS OF A GEISHA)>을 Digital Multimedia Converting System을 이용하여 영상 캡처한 후 분석하였다.

II. 게이샤의 유래와 활동

1. 게이샤의 개념

예술가란 뜻의 게이샤(藝者)는 연회자리에 초대되어 춤과 노래, 악기 등 일본풍의 오락으로 흥을 돋우는 직업여성을 말한다. 게이샤는 수백년에 걸쳐 신체적으로 뿐 만아니라 정신적인 접대로 남자를 사로잡았다. ‘아름답지 않으면 게이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오직 아름다움만으로 이루어진 게이샤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으로 불렸다. 춤, 음악, 미술, 화법 등 다방면에 걸쳐 수년간의 험난한 정식교육 과정과 견습 게이샤인 마이코(舞子) 단계를 훌륭하게 마쳐야만 정식 게이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완숙한 게이샤는 ‘오카미산(女將さん)’, 수련 중인 어린 소녀는 ‘마이코(舞子)’, 나이 어린 게이샤 지망생은 달걀이라는 의미로 ‘타마코(卵)’라고 부른다. 가장 나이가 많은 게이샤인 오카미산은 대모로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마이코는 사교모임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대화의 흐름을 주도해서는 안되며 단지 모임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한편 게이샤에게 치루는 돈을 교쿠다이(玉代)라고 하는데 수업중인 소녀를 불렀을 때는 화대를 반 만 주게 되어있어 수업중인 어린 게이샤지망생을 한교쿠(半玉)라고

도 부른다.⁴⁾

일본의 경제 기적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들은 주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택하게 되었는데 대개 가난한 부모를 만나 남에게 팔리거나,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게이샤의 딸로 태어난 경우가 많았다.

게이샤는 보통 양가의 여자보다도 하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전에는 무희로서, 적어도 작인(酌人)으로서, 혹은 급사(給仕)로서 논의되던 것이 근세에는 천업부(賤業婦), 추업자(醜業者), 창기, 밀매춘부까지로 논의되게 되었다.

게이샤의 명칭으로 기온(祇園) 코부에서는 자신들을 게이샤라고 부르지 않고 예술하는 여성이라는 뜻의 더욱 명확한 용어인 ‘게이코(藝子)’라는 단어를 쓰고 메이지시대이후의 관용어로는 ‘게이기(藝妓)’라고 한다. 게이샤는 유곽(遊廓)에서 발생한 쿠루와게이샤(郭藝者)와 시중에 산재한 마찌게이샤(町藝者) 두 가지 계통이 있었는데 마찌게이샤는 쿠루와게이샤 보다 품격이 낮게 여겨졌다.⁵⁾

쿠루와게이샤의 출현은 오오사카(大坂)에서 교우호우(享保, 1716-1736), 에도(江戸)에서는 호우레끼(寶曆, 1751-1764)경의 일이지만 그 전신으로 겐로꾸(元禄, 1688-1704)의 타이코쥬로(太鼓女郎)가 있다.⁶⁾

에도시대의 아소비온나(遊女)를 지녀(地女)라고도 했는데 일반여성들을 무시할 정도로 그들의 지위는 낮았다.⁷⁾

2. 게이샤의 유래

나라(奈良)시대 무렵에 있던 ‘유코쥬(遊行女)’는 해안선의 숙박지를 통과하는 관인(官人)의 초대에 응하여 여정(旅情)을 돕도록 했는데 「만엽집」에 유코쥬(遊行女)가 만든 노래가 실릴 정도로 상당히 품위가 있고 일본고유형식의 시(詩)인 와가(和歌)가 뛰어나며 예술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게이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게이샤의 원류를 헤이안(平安)시대의 시라보오시(白拍子)에서 찾기도 하는데 그 후에 에도시대에 와서는 주로 유곽에서 예능일 만 하였다. 게이샤는 연령을 불문하고 처녀의 모습으

로 짙은 화장을 하고 풍기문란 시킨다하여 여러 차례 금지되었다.⁸⁾

이즈모 다이샤(出雲大社)의 무녀 오쿠니(お國)가 첫 오쿠니가부끼(お國歌舞妓)인 것, 여자아이 중에서 사미센을 켜고 노래가 뛰어난 자를 가리켜 부른 교토의 사꾸카시라쥬로(索頭女郎), 에도시대 대중탕에 있던 창녀 유나(湯女), 에도시대 역 근처 여인숙에서 손님의 시중도 들고 매춘도 한 메시모리온나(飯盛女), 꼭뚜각시 놀리는 일이 여자의 전문직이 된 후 매춘도 한 쿠구즈(傀儡) 등도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날 게이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⁹⁾

1642년 무렵 시내 곳곳에 산재해있던 소규모 유곽들을 관명으로 집결시키면서 형성된 나가사키에 자리한 마루야마(丸山)는 일본 3대 화류가 중에 하나였다. 개항기에는 국제 항구였던 나가사키의 속성에 따라 유곽도 일본인 상대 유곽, 중국인 상대 유곽, 서양인 상대 유곽으로 나눌 만큼 번성하였다.

에도시대에 마찌게이샤가 생기기 전인 덴나(天和, 1681-1683) 사이에 오도리코(踊子)라는 것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사미센을 켜는 사람은 장님의 여자거지 뿐이었는데 겐로꾸(元禄)시대가 되면 갑자기 에도 근방에서 오도리코의 모습을 보게 되며 이들 오도리코를 게이샤라고 부르게 된 것은 덴메이(天明, 1781-1788)말부터의 일이다.

겐로꾸시대(1688-1702)의 오도리코(舞子)는 춤을 장기로 하여 시내 각 곳에서 발생한 사창(私娼)이었는데 이것이 메이와(明和, 1764-1771)경 마찌게이샤가 되었으며 요리집, 선술집, 무가(武家), 마을의 저택에 초대되어 흥을 돋우고 매춘도 하였다.

한편 1720년인 교우호우(享保) 5년 행정, 사법, 경찰, 민생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마찌부교(町奉行)인 오오카에즈젠가미(大岡越前守)는 공인된 요시하라(吉原)이외의 장소에서는 매춘을 금지하여 게이샤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¹⁰⁾ 당시 여자아이는 하오리(羽織)를 입지 않았는데 하오리를 입음으로써 남장화하였고, 추울 때도 다비를 신지않고 게다(下駄)는 남성용 게다인 아즈마게다(吾妻下駄)를 신어 전체적으로 남자같이 꾸며 범망을 피하려하였는

데 이것이 후카가와 나카마찌 게이샤(深川仲町藝者)였다.

에도시대 말기가 되자 각지에서 게이샤놀이가 성행하게 되고 다쓰미(辰巳)게이샤, 하오리(羽織)게이샤라고도 불린 에도의 후카가와(深川) 게이샤가 의협심을 인정받아 유곽을 대표하는 신흥 관락지(觀樂地)로 호황을 누렸다.¹¹⁾

교토의 게이샤는 호우레끼(寶曆)원년인 1751년 시마바라(鳥原)에 나타난 것이 기원이며 게이샤 풍속은 에도(江戸)와 달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난 것은 기온(祇園) 게이샤이고 오오사카에서는 남찌(南地)게이샤가 예능도 뛰어났는데 특히 남찌 게이샤가 출입할 때 타는 가마는 아주 화려한 것이었다.

호우레끼(寶曆, 1751-1763) 당시 관허가인 요시하라(吉原)에 대해 비공인 유곽인 오까바쇼(岡場所)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타쓰미(辰巳)에서는 목덜미 화장, 풍류 없이 곧은 빛, 무지거나 코몬(小紋)등 아주 산뜻한 모습으로 그 이전 '후카가와(深川)의 하오리'라고 일컬으며 멸시받은 타쓰미게이샤는 어느새 취색의 표적이 되었다.

요시와라(吉原) 게이샤의 시조는 호우레끼12년(寶曆, 1762년) 가다야(肩屋)에 나온 카센(歌扇)인데, 처음에는 보통의 아소비온나(遊女)였던 그녀가 사미센과 창이 뛰어나서 고용살이를 끝내자 후원자를 방패로 게이샤가 되었고 오차야(茶屋)에서 사미센과 비파를 쳤다. 이윽고 유곽(遊廓)에는 점차 게이샤가 증가하고 명성 있는 타마야(玉屋)가 난립했다. 요시와라의 게이샤들은 유곽의 기녀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결코 손님에게 몸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남자 못지않게 시원스런 성격을 자랑하며 예술을 위한 외길인생으로 자신의 운명을 지켜가고자 하였다.¹²⁾

메이지시대 이후 도쿄에서는 후카가와(深川) 대신 류우하시(柳橋)가 성하여 정, 관, 재계를 모아들이어서 화류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메이지(明治)유신의 으뜸가는 공적을 지닌 정계의 무수한 대관, 재벌들의 부인은 다 각종 유곽의 게이샤들이었는데 국제적 외교수립과 더불어 구미각국의 부부동반과 그들 주부들의 사교, 연회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진출성, 명랑한 사교성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기인한다.¹³⁾

메이지시대 이후 일반 게이샤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지방도시까지 퍼지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의 불합리한 제도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자유업으로 변모하였다.

1910년대, 20년대를 통해서 게이샤를 사회표면에 띄지 않게 하는 풍토가 생겼는데 이러한 경향은 게이샤와 화류계가 대중에게 아주 가까운 것이 아니고 거리가 있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도리어 게이샤들을 고급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고전예능의 기예를 보유한 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혀 기예가 없는 매춘전문 여성의 게이샤에 포함하는 업자가 목인되는 등 게이샤의 성격이나 수준은 여러 가지이다.

3. 게이샤의 교육과 활동

게이샤가 되려면 게이샤학교에서 전통춤에서부터 노래, 일본 전통악기인 사미센 켜는 훈련을 최소한 5년은 배워야하고, 다도와 꽃꽂이, 고대 일본 도자기, 심지어는 세계의 정치까지도 공부해야한다. 특히 비올라처럼 연주하는 소형 3현악기인 사미센은 게이샤가 춤을 출 때 빠짐 없이 연주되는 악기이다.

본래 게이샤의 교육은 만6세 6개월 6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만 16세가 되어야 끝이 난다. 10년 동안 은퇴한 게이샤가 운영하는 오키야(置屋)에서 숙식을 하는데 은퇴한 게이샤를 어머니라 부르면서 교육을 받는다. 오키야의 여주인은 게이코가 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게이코가 데뷔를 한 후에는 매니저 역할을 맡아 경력을 관리한다. 보통 5~7년 정도의 계약기간동안 오키야에 거주하며 이후는 독립해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다만 오키야의 후계자인 아토토리(跡取り)로 지명된 게이코는 오키야의 성(姓)을 물려받으며 게이코 활동기간 내내 오키야에 거주한다.¹⁴⁾

17세경에 독립하는 것이 메이지시대부터 쇼화(昭和)시대의 기본형식이지만 마이코를 거치지 않고 게이샤가 되는 일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적하는 일도 있었다.

근대국가로 발돋움 하려고 했던 메이지정부는 유곽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봉사 계약을 폐지하는 해방령을 선포하였다. 1872년경 이 해방령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립된 기온코부 전문여성 훈련협회는 게이샤와 게이코로 일하는 여성들의 자급자족과 사회적 신분의 개선을 주창했다. 또한 게이코를 교육시키는 직업 학교를 설립했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여자아이들은 11~12 살 같은 어린 나이에 마이코나 게이코가 될 수 있었다.

전쟁후인 1952년 재단은 교육재단이 되었고 학교 명칭은 아사카 뇨코바학원으로 바뀌었다. 교육개혁으로 뇨코바에 입학하려는 여자아이들은 중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고, 열다섯 살이 되기 전에는 마이코가 될 수 없었다.

게이코는 보통 타치카타(立方)과 지카타(地方) 두 부류로 나뉜다. 메인 공연자인 타치카타는 춤을 추면서 통소나 장구같은 사미센 이외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교육받은 사람이며, 지카타는 사미센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교육받은 반주자이다. 일찍부터 교육받기 시작하는 타치카타가 10대 초반에 마이코로 데뷔하는 반면 일반 게이코 출신인 지카타는 짧은 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나이가 들어 데뷔하는 경향이 있다.

타치카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아름다워야 하지만 지카타는 그렇지 않아도 되며 춤 솜씨가 훌륭한 편이 못되는 타치카타는 나름의 악기를 선택해서 그 악기의 전문가가 되는 쪽에 집중한다. 게이샤의 기예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요소는 무용이어서 가장 유망하고 아름다운 게이샤만이 무용을 전공하도록 권유를 받는다.

다도(茶道)는 게이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저택에서 이루어지는 파티는 보통 간단한 다도로 시작하며 철마다 열리는 무용을 보러 기온으로 오는 손님들은 우선 게이샤에게 차를 대접받기 때문이다.¹⁵⁾

마이코와 게이코는 찻집이라는 의미의 오차야(お茶室)라는 연회전용시설에서 공연한다.

오차야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오자시키(座)라고 부르는데 연회 또는 만찬 파티 정도의 뜻으로 그 행사를 벌이는 방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오자시키는 행사를 주관하는 분과 그 분이

모신 손님들이 아주 안락한 분위기에서 최고의 요리를 맛보고 활기찬 얘기를 주고받으며 오차야에서 제공하는 세련된 여흥을 만끽하기 위한 행사이다. 오차야에서 정기적인 개인파티를 열어 고객을 즐겁게 하거나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일련의 공연행사에 참가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미야코 오도리(都踊り)라고 하는 일명 체리댄스로 매년 4월 전용극장인 카부렌조(歌舞練場)에서 개최된다.

게이코마다 별도의 장부가 있으며 어떤 손님을 모실 때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까지 해당 게이코의 활동 하나하나를 기입한다. 게이코는 할당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데 스케줄을 받으면 모시게 될 손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가령 정치인을 모실 경우에는 그 손님이 참여하고 있는 입법 활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작가인 경우 그가 쓴 소설을 읽는다. 따라서 마이코 시절 많은 시간을 서점과 도서관, 박물관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III. 게이샤의 의상과 장식

1. 의상

1) 에도시대

에도시대의 복식은 현재의 일본 복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에도시대 안에이(安永)무렵 야겐보리(薬研堀)게이샤의 풍속은 주황색 칠을 한 코마게다(駒下駄)와 따로 굽을 달지않고 통나무를 깎아만든 게다)와 눈보다 희고 가냘픈 맨발, 검은색 벨벳의 작은 꽃모양, 검은 찌리멘(縮緬, 견직물의 일종으로 바탕이 오글쭙글한 비단)에 염색하여 가을 모란 무늬를 넣은 상의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속은 칸세이(寛政)개혁에서 금지되어 풍속은 변해왔지만 에즈나까카미(越中守)는 개혁 전후의 여자 풍속에 대해 화려하기보다는 청순함을 더 좋아한다고 평하고 있다.¹⁶⁾

하지만 텐보(天保)개혁 전의 호사스러운 게이샤의 의상은 칸세이(寛政)개혁전의 사치스러운 과 같아졌으며 안과 겉을 다른 색의 형질으로

만든 여성의 오비인 쿠지라오비(鯨帶)를 부활시킨 것도 게이샤이다. 또한 오비를 고토코(ゴトコ)묵음으로 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오비의 드리워짐이 되는 쪽을 조금 끌어 올려 처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묵음법으로, 잡아당기면 바로 오비가 풀렸기 때문에 정부(情夫)와 밀회한다는 의미로 마고토코 묵음(マゴトコ結)이라고 하였다.

에도막부체제가 안정되어 경제가 발달하자 도시상인이 문화의 담당자가 되었다. 그들이 취한 배우와 게이샤의 패션은 폭이 약간 넓은 오비를 아래쪽에 묶고 어깨부터 단까지 대담한 무늬를 나타내는 참신한 모양의 칸분고소테(寛文小袖)가 되고 그것은 고운 생사로 짠 고급 문직인 린즈(綸子)바닥에 금은사로 문양을 나타낸 우아하고 세련된 겐로쿠고소테(元禄小袖)가 되었다.

아소비온나(遊女)의 의상은 가부키 배우와 비슷하게 사람의 눈에 띄는 화려한 모양을 선호하여서 후광처럼 많이 꽃은 칸자시(簪), 전결(前結)의 두툼고 큰 오비, 우찌가께(褌襦)등 비교적 쉽게 알아보며 일반서민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많았는데, 게이샤의 의상은 일반여성들도 빠짐없이 흉내 내었다. 특히 에도 시대의 게이샤의 세련된 패션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풍속화인 우키요에에 묘사된 여성 중에는 게이샤인지 일반여성인지 알 수 없는 인물도 많았다.

에도시대부터 게이샤의 예장(禮裝)은 쿠로몬쓰끼(黒紋府)로 외출시에는 자락을 왼손으로 잡는 것이 관습이어서 이 일로 ‘왼자락은 게이샤’라는 말이 성립되었다. 특히 시로에리쿠로몬쓰끼(白襟黒紋府)에 오비로 여민 모습은 게이샤의 제 1 예장이며 크게 젓혀진 것이 요염하게 보였다.¹⁷⁾

게이샤는 후리소테(振袖)를 입고 술자리에 나와서 도메소테(留袖)로 갈아입고 돌아갈 때는 다시 후리소테로 갈아입었는데, 이윽고 후리소테가 유행되지 않게되자 겨울은 꼬지않은 실로 거칠게 짠 비단인 메이센지마(銘仙縞)의 고소테(小袖), 여름에는 카스리(紘)의 홀겹, 그리고 아무리 추위도 다비(足袋)는 신지않은 맨발이며, 부인은 게다, 그리고 하오리(羽織)도 입지 않았

다. 후카가와(深川)의 게이샤를 하오리라고 말한 것은 이 지방만 하오리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덴보(天保, 1830-1843)가 되면 후카가와(深川) 게이샤도 하오리를 입지 않고, 화장도 아주 열게 하고 겨울이면 무지나 코몬(小紋)의 겹고소테에 사게오비(下げ帶)로 멋지고 고상함을 궁지로 삼았다.

오비는 모모야마(桃山)시대부터 점점 아름답고 호화롭게 되었으며 특히 둥글게 여덟 번 끈끈이나 가라우치(唐打)라고 하는 16번 끈 끈의 양끝에 술을 단 나고야오비(名護屋帶)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나고야(名護屋)에서 중국의 직인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색은 적색, 자색과 홍백색을 섞어 염색한 것, 또는 금실을 섞은 것도 있었는데 특히 아소비온나(遊女)와 멋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다.¹⁸⁾

고소테 위에 매는 오비는 칸분(寛文, 1661-1671)을 지나서 죠교(貞享, 1684-1685)·겐로쿠(元禄, 1688-1702)기 사이에 그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칸분기에는 폭이 10cm 정도였는데 엔포(延寶, 1673-1680)·덴나(天和, 1681-1682)기에 17~18cm가 되고 겐로쿠기에는 20cm 정도 되었다. 이제까지는 고소테의 무늬가 중단된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의 오비 폭이었는데 이 처럼 오비의 폭이 넓어지고, 고소테의 뒷면에서 폭 넓은 오비를 묶으면서 고소테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여 무늬의 모양새가 끊겨버렸다. 그래서 고소테의 뒷길좌측의 공간에도 무늬를 두어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되던지, 무늬를 상하로 나누어 배치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¹⁹⁾

에도후기가 되면 오비의 폭은 더욱 넓게 되어 30cm 이상의 것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겹을 쿠로쥬스(黒縹子)로 하고 안을 다른 바탕색과 문양의 것으로 한 하라아와세오비(腹合帶)나 찌유야오비(晝夜帶)등이 변화가 여성 사이에서 선호되었다.

또한 후기의 오비는 과거에 비해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묶였으며 길이도 짧아졌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북 형태의 묵음이라는 ‘타이꼬무스비(太鼓結ひ)’였다. 게이샤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고 하는 타이꼬무스비의 형태는 각진 사각형부분에 공예적 표현인 공간을 두며, 묵은

매듭 모양이 꽤 커서 외국인 눈에는 기이한 것을 등에 짊어진 것처럼 보인 것으로 현재까지도 애호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비의 묶음형식이다.²⁰⁾

이렇게 처음에는 고소테의 앞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끈과 폭이 좁은 원단이었던 오비는 에도시대를 지나서 폭이 넓고 긴 것이 되어 막부 말엽에는 폭이 약 68cm, 길이는 4m 이상 되어 오비를 지탱하기 위한 오비지메(帶締め)와 오비아게(帶揚げ)도 등장하였다.

에도시대에 게이샤 사이에서 유행한 기모노의 착장법은 많은 여성들이 의해 모방되었다.

2) 소와(昭和)시대 이후

소와(昭和)초기가 되자 에도시대부터 만들어진 작은 무늬가 있고 꼬지 않은 실로 거칠게 짠 실크인 메이센(銘仙)과 고쇼우(御召)가 크게 발전했으며, 다이세이(大正)시대에 유행한 서양풍의 표현과 전통적인 줄무늬, 야카스리(矢絣)를 대담한 배색과 근대적인 디자인으로 배열한 것이 유행하였다.

게이코(藝子)는 목욕을 하고 머리를 만진 후 고도로 양식화된 화장을 한다. 그러면 드레서인 오토코슈(男衆)가 의상을 입히려 오는데 대부분 남자인 드레서는 착장법을 터득하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이며 훌륭한 드레서를 뒀느냐의 여부는 게이코로 성공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게이코는 우선 표백한 사각형 흰색 면으로 된 속옷 두벌을 입는데 하나는 엉덩이 주변에 팽팽하게 두르고 다른 하나는 가슴에 둘렀는데 가슴에 두르는 속옷은 기모노의 선을 부드럽고 팽팽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하프슬립처럼 생긴 기다란 면을 엉덩이에 두르고 기모노가 벌어지더라도 속이 보이지 않도록 기다란 블루머를 입는다. 그 다음 기모노의 선을 따라 이어지는 혈거운 블라우스 같은 옷웃인 하다주반(肌襦袢)을 입는데 마이코가 입는 하다주반은 옷깃이 빨간색이며 이 위로 나가주반(長襦袢)이라는 긴 속옷을 걸쳤다.

이 속옷은 원래 무지로 사람 키 정도의 길이였는데 포루투갈어의 ‘지반’에서 유래된 주반

(襦袢)이라는 것과 같이 소매가 붙은 나가주반과 키의 반정도 길이의 한주반(半襦袢)이 있었으며 모두 문양이 있고 사치스러운 것이었다.²¹⁾ 마이코(舞子)가 입는 주반은 게다가 발밑이 보이는 붉은색의 것으로 본래 속옷인 것을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입어서 마이코의 매력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마이코 의상의 특징 중 하나는 나가주반 위에 손바느질로 꿰매 다는 독특한 에리(衿)이다. 비단으로 만든 에리에는 흰색, 은색, 금색실로 촘촘한 수를 놓는데 젊은 마이코의 깃털수룩 수는 성근편이어서 바탕의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빨간 색은 보기 힘들어질 정도로 장식이 두툼해 진다. 이런 과정은 마이코에서 게이코로 승격하여 빨간색 대신 흰색 에리를 걸치기 시작하는 에리를 바꾸는 날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마이코에서 성인 게이코로 승급했음을 알리는 통과 의례를 ‘옷깃을 바꾼다’는 의미의 에리카에(襟代)라고 한다.

나가주반을 입은 후 마이코가 입은 기모노를 히끼즈리(引摺り)라고 하는데 보통 기모노와 달리 소매가 길고 옷자락이 넓은 것으로 이것이 마이코의 독특한 조형미를 낳고 있는 것인데, 걸을 때는 방해가 되므로 끌리지 않도록 끈을 사용해 옷자락을 고정하며 목 뒷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 착용시 이렇게 누리에리(拔襟)를 하면 키가 커 보인다.²²⁾

젊은 게이샤의 옷은 나이든 게이샤의 것보다 더 요란해서 색상도 더 밝고 천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오비도 훨씬 더 길며 20살이 되지 않은



<그림1> 다라리노 오비

경우는 좀 더 화려한 형태로 오비를 묶는다. 견습게이샤의 경우 가장 과장된 형태로 오비를 묶는데 거의 어깨높이까지 매듭을 만들고 그 끝은 바닥까지 끌리게 한다. 이 게이코의 오비는 ‘다라리노(だらりの) 오비’로 불리며 2가닥의 오비가 아주 독특하고 사랑스럽게 처진 형태를 하고 있다. 걸으면 바람을 받아 하늘하늘 흔들려 우아하다. 에도시대 아가씨의 장난기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늘어진 오비인데 지금은 게이코의 상징이 되어 있다²³⁾<그림1>.

의상담당자로서의 주요임무는 오비를 묶는 일인데 오비를 제자리에 잘 묶기 위해서는 여섯 개의 끈과 버클이 필요하며 매듭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패딩이 필요하다.

소와시대 초기 일류게이샤의 연회복인 카사네(蓑)라는 겹옷은 한 벌에 400~500엔 정도였는데 미쓰고시히로끼야(三越白木屋)등에서 옷감부터 모양까지 주문하며 많은 종류의 카사네를 갖고 연회의 성질이나 손님에 따라 갈아입었다. 길어야 3년 정도 만에 완전히 새로 맞추는데, 유명한 인기 게이샤일수록 새로 맞추는 기간도 짧고 벌수도 넉넉히 갖고 있었다. 이름을 떨친 게이샤의 전성시대에는 6짝 옷장에 의상이 꼭 차 있어 연회에 따라 매번 갈아입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3일 이후에는 연회에 입고 나오지 않았다. 인기 있는 게이샤에게 입혔던 중고 옷은 인기 없는 게이샤에게로 계속 양도되므로 최후에 가장 인기 없는 게이샤의 손에 갔을 때는 다시 재봉되고 4~5사람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인기 있는 게이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낡은 옷만 입게 되는 인기 없는 게이샤에 있어서는 가혹한 일이었다.²⁴⁾

나막신 게다(下駄)는 크게 구분하여 바닥에 굽을 끼워넣는 ‘사시하게다(差下齒駄)’와 하나의 목재를 깎아서 굽을 만들어내는 ‘나카쿠리게다(中割下駄)’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기원은 야요이(彌生)시대의 농기구 다게다(田下駄)라는 것이다.²⁵⁾ 홋꾸리(ぼっくり)라는 게다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높은 게다인데 옷칠하고 금, 은 가루로 표면에 무늬를 장식해서 고급스러운 것이 많으며 현재는 마이코(舞妓)와 7·5·3의 여아용 게다로 사용된다.

마이코가 기모노를 입을 때 나막신과 가죽신

을 신어야 하는데 10~15cm높이의 나막신인 오코보(木履)는 마이코의 차림새를 특징짓는 부분이다. 신발의 높이는 마이코의 기다란 오비가 달랑거리는 끝단 맞은편에서 균형을 잡는 균형추에 해당한다. 오코보는 밑바닥부분이 윗바닥 부분에 절반에 불과하여 신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불편하지만 오코보를 신었을 때 견게 되는 종종 걸음이 마이코의 매력을 한 층 더해 주며 신인게이샤는 붉은 색이다가 점차 수수한 색으로 바뀌어 간다<그림2>.



<그림2> 오코보

마이코와 게이코는 늘 흰색의 버선인 다비를 신는데 병어리장갑처럼 끝이 갈라져있는 다비의 커다란 버선코는 발가락으로 나막신을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며 버선의 크기는 신발의 크기보다 한 치수 작아서 발의 모양이 말쑥하고 예쁘게 보인다.

게이샤는 요정이나 찻집에서만 일할 뿐 유곽에는 나가지 않았다. 게이샤는 예(藝)만 팔고 아소비온나(遊女)는 색을 팔아 확연히 다르지만 게이샤와 아소비온나를 곧잘 혼동한다. 게이샤는 항상 하얀 다비를 신었지만 아소비온나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도 다비를 신는 게 용납되지 않아 일 년 내내 맨발로 다녔다.²⁶⁾

소품인 향수병과 접는 부채는 오비 속에 집어 넣고 손수건은 오른쪽 소매 안에 넣어 다녔으며, 훔치기염을 한 다채로운 색상의 비단을 바꾸니 짜듯이 엮어서 만들고 끈으로 입구를 졸라매는 작은 전통핸드백 카고(籠)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 이 핸드백 안에는 춤 부채, 손수건, 회양목으로 만든 빗, 액세서리 등이 담겨있다.

1930년대 후반 ‘스타일’에 소개된 도쿄의 일류게이샤들의 착장을 보면 게이샤풍이 붕괴된 듯 보이며 이미 의식화 되었는데 왼손으로 옷자락을 잡는 것이나 에리(衿)를 누리에리하고, 오비(帶)를 허리띠 근처로 낮게 매는 게이샤의

착장법은 메이지시대의 게이사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세련된 것이다.

2. 화장과 머리장식

1) 화장

일반적으로 마이코의 얼굴은 완벽한 달걀형이며 피부는 흠집 하나 없는 흰색이고,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새까만 색이다. 또한 눈썹은 반달모양이고 입술은 우아한 장미꽃잎이고 목은 길며 자태는 세련미가 넘친다.

마이코의 얼굴과 목에는 특유의 하얀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은 봉건시대에 신성한 존재로 간주된 천황이 앉은 막 뒤에 모습을 감춘 채로 신하들을 맞을 당시 조명도구인 촛불에 하얀 화장이 반사되어 알현하는 남자귀족의 얼굴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었던 것에 유래한다. 나중에 춤꾼과 배우들이 하얀 화장을 하면 무대 위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뿐 아니라 밝은 피부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부응할 수 있어서 이 관행을 넘겨받았다.²⁷⁾

화장할 때 먼저 목의 앞과 뒤, 등 상부, 얼굴 순으로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폼파드인 빈스케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으로 기름을 바른 부위에 흰색 화장을 칠한다. 흰색 화장을 할 때 뒷 목덜미에 세로줄을 남겨 목의 길이와 연약함을 강조하는데 평상복을 입을 때는 두 줄기를 남기는 ‘니본아시(二本足)’ <그림3>이고, 처음 얼굴을 알리거나 시업식 등 정장을 할 경우에 세 줄기를 남기는 ‘산본아시(三本足)’를 하여 연회로 나가는 긴장감을 표현하기도 한다.²⁸⁾

다시 턱과 콧날, 가슴 상부를 칠하고 분홍색 분가루를 찍어서 뺨과 눈 주위에 바른 후 사방

에 흰색 분을 덧칠한다. 백분(白粉)은 고풍의 분 형태의 것이 있으며 물에 녹여 솔로 바르는 것인데 에도시대에는 얇게 바르는 것을 좋아했다. 원료는 납(鉛)이며 ‘美艷仙女香’이라는 백분이 특히 유명했다.

에도시대후기에는 연백(鉛白)을 재료로 한 ‘하우니(はうに)’ 또는 수은을 재료로 한 경백분(京白粉)인 ‘하라야(はらや)’ 외에 호분(胡粉), 곡식으로 만든 곡분(穀粉), 분꽃·하늘타리(天瓜)가루 등 식물성을 혼용한 분을 발랐다. 납과 수은을 소재로 한 화장품의 피해가 크게 말뚝이 되어 메이지말년(1912년) 무렵부터 무연(無鉛)분, 어원(御園)분, 대학(大學)분, 구라부(クラブ)분 등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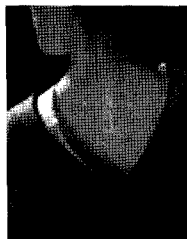
눈에는 다시 빨간색을 바르고 검정색 연필로 눈썹을 그린 후 입술에 분홍립스틱을 바르는데 예전에는 눈썹은 면도나 털 뽑기로 모양을 정리하고 그을음이나 보리이삭에서 얻은 눈썹 그리는 먹을 만들어 사용했다. 연지는 붉은 꽃을 찾그릇에 짚은 것을 붓에 발라 입술을 그리는데 연지는 겨울의 추운 소(牛)의 날에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있다. 입술연지는 브러시를 이용해 당시유행인 형태로 칠하는데 1930년대에는 윗입술은 칠하지 않고 아랫입술만 칠해서 풍만하게 보이는 것이 유행이었다.

2) 머리스타일과 장식

에도시대후기 가부키와 아소비온나(遊女)의 풍습이 일반 서민에게도 퍼져 여러 가지 머리형이 창안되었다.

마이코의 첫 헤어스타일은 와레시노부(割れしのぶ, 割信夫)스타일인데 머리카락을 한테 모아 정수리에 얹고 붉은 비단 끈으로 앞뒤를 단단히 여민 후, 화류계 특유의 장신구인 칸자시(簪)로 모양을 낸다. 이런 우아한 스타일은 2년 정도 계속하는데 여성의 목선을 예쁘게 하면서 외모를 돋보이게 해준다.

마이코로 2년 활동한 후 마이코의 승급을 축하하며 처음 남자를 경험하는 의식인 미즈야게(水揚げ)를 거행하는데 이 미즈야게 행사에서는 마이코가 소녀에서 젊은 여성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머리를 묶은 리본을 자르



<그림3> 니본아시와 산본아시



<그림4> 꽃 칸자시



<그림5> 타카마쿠라

게 되며, 이후로는 더욱 어른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다.

고참 마이코의 일상적인 헤어스타일은 오후쿠(おふく)스타일이라고 하며,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정식 기모노를 입을 때는 야코(やっこ) 헤어스타일을, 7월에 열리는 기온 축제의 전후 한 달 동안은 카즈야마(勝山) 헤어스타일을 한다.²⁹⁾

머리장식 중 뒷머리 쪽에는 아리마찌카노코(ありまち鹿の子)라고 부르는 빨간 비단 끈을, 정수리에는 카노코도메(鹿の子留)라고 부르는 끈을 묶고 산호와 옥, 은으로 만든 칸자시를 꽂았다. 칸자시(簪)는 원래 코우가이(笄)로 귀이개 부분을 장식해서 비녀로 하였는데 그 후에는 귀이개 부분이 없는 납작한 비녀와 은사슬이 늘어진 팔랑거리는 비녀등 장식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 꽃 칸자시는 계절의 꽃을 주제로 장식한다<그림4>.

그 다음 오키야의 문장이 전면에 새겨진 은제 비라 두개를 더 꽂고 치리칸이라고 부르는 별갑(鱧甲) 장신구도 꽂았는데 이 치리칸은 마이코의 데뷔 후 첫 사흘 동안, 평생 단 한번만 꽂게

되므로 아주 특별한 장신구이다. 그 외 머리에 하는 장식으로는 쿠시(櫛)와 코우가이(笄)등이 있다.

원래 쿠시(櫛)는 머리를 빗는 빗으로 머리에 꽂게 된 것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의 일이다. 자라 등껍질 빗은 고가이며 손쉽게 서민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재질로는 소재를 살려서 가공하지 않은 회양목, 흑단, 자단, 오동나무 등의 표피를 그대로 한 것과 칠기에 은, 금가루로 무늬를 놓은 마꾸에(蒔繪)로 세공된 것 등이 있다.³⁰⁾ 겐나이쿠시(源内櫛)라는 것이 유명한데 이것은 침향나무로 만든 것으로 요시와라(吉原)의 게이샤로 추정되는 게이샤가 이것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문나 크게 유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 쿠시의 윗부분에 은장식을 한 것은 겐나이쿠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코우가이(笄)는 원래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을 정돈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에도시대 중기 이후는 단지 장식품이 되었다. 봉상태의 평편한 것부터 시작하여 각진 봉모양의 것등 젊은 여성들은 코우가이와 같은 종류의 재질로 만든 꽃을 양쪽에 장식하기도 했다.

<표1> 마이코와 게이샤의 복장비교

	마이코	게이샤
머리형	와레시노부	오후쿠
에리장식	붉은 바탕에 자수	흰 것
복장	긴소매, 화려함	좁은 소매, 세련됨
오비묶음	다라리노 무스비	타이코 무스비
신	오코보	일반게다
화장	진함, 아랫입술만 연지사용	연함, 위아래 입술 모두 연지사용

아름다운 머리모양을 만들기 위해 게이샤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어린 게이샤가 이런 머리를 몇 년 하고나면 정수리가 벗겨지게 된다. 게이샤는 잠을 잘 때도 공들여 장식한 머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밑알을 잔뜩 채우고 천으로 겹을 감싼 높은 목침인 타카마쿠라(高枕)를 베고 잤는데 자다가 목침에서 머리가 내려올 경우 왁스 바른 머리에 목침 주위에 뿌려두었던 쌀가루가 달라붙어 머리모양을 망치는 곤란함을 겪기도하였다<그림5>.

<표1>은 마이코와 게이샤의 복장을 머리형, 에리장식, 복장, 오비묶음, 신, 화장의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3. 유행창조자로서의 게이샤

아소비온나(遊女)를 포함하여 게이샤와 유행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었다.

분카(文化)시대에 가부키배우와 게이샤 등의 예인이 에도(현 도쿄)에 2만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후가가와 게이샤가 입기 시작한 여자 하오리(羽織)를 관서게이샤가 에도의 상류부인에게 보급하였는데 일반 부인이 하오리를 입기 시작하게 된 것은 덴보(天保)이후의 일로 명주 짜리넨(縮緬), 남부 짜리넨을 이용하였고, 안세이(安政)이후에는 곤색 혹은 검정색의 조잡한 모직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숨이 들어있는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조잡한 모직물 사용이래로 타제품을 이용한 겹하오리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게이샤가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³¹⁾

에도시대 무가(武家)의 여성들은 간단하고 검소한 복장을 하였지만 그 외에 계층에서는 당시에 유행을 선도하였던 가부키 배우나 예능인, 기생들을 따라 착용하여서 길고 커다란 소매가 달린 기모노인 후리소데(振袖)는 더 이상 고귀한 신분의 상징이 되지 못하였다.

근세 머리모양에서도 게이쵸우(慶長)무렵에 유행한 효우고마게(兵庫鬘)는 섭진병고(攝津兵庫)지방의 한 아소비온나(遊女)의 영향이며, 시마다마게(島田鬘)도 동해도(東海道) 시마다(島田) 여인숙의 아소비온나로부터 시작되었고, 카츠야마마게(勝山鬘)도 쇼우우(承應)무렵 아소비온

나인 카츠야마(勝山)가 연구한 것이다. 시마다마게(島田鬘)는 주로 미혼여성의 머리 형태로 이마 위와 옆으로는 등그렇게 부풀려 올리고, 뒷머리는 빗어내려 그 중간을 묶어 위로 접어올린 머리스타일이다.

향료의 일종인 가라(伽羅)의 이름난 향을 머리에 피우는 것을 유행시킨 것도 아소비온나이며, 두개의 쿠시(櫛)장식이나 손톱에 붉은 칠 하는 것도 겐로꾸시대의 화류계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인용 좁은 속피인 다데마게(だて巻)의 자락을 묶지 않고 꺾어 넣는 오비(帯)인 쿠후오비(込帯)는 교토의 화류계에서 나온 유행이며 두 마리의 새가 날개를 나란히 한 모양으로 히요꾸몬(比翼紋), 후다쯔몬(二つ紋)도 같은 시대의 화류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 외 소매모양으로 만든 주머니 두개를 끈으로 묶은 향낭인 타가소데(誰が袖)를 소매아래에 늘이고 향을 자랑하는 유행, 가운데를 희게하고 주변을 검정색, 감색, 적색으로 큰 고리모양으로 칠하여 뱀의 눈 모양을 나타낸 종이우산인 자노메가사(蛇目傘)의 유행, 오동나무 바닥 게다(下駄)의 유행, 심 없는 한쪽 오비(帯)의 유행, 후가가와게이샤의 머리묶음이 여성결발(結髮)의 시조가 된 것, 우아하다고 하여 시다마찌(下町)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스타일로 머리를 끈으로 묶지 않고 빗에 감아서 머리위에 틀어 올리는 간단한 방식의 쿠시마게(櫛巻)도 안에이(安永)의 화류계로부터 유행하여 전역에 퍼진 것이다.³²⁾

한편 메이지 중엽까지 크게 유행한 하나칸자시(花簪)는 호우래기(寶曆)무렵 마이코(舞子) 견습생이 처음 이것을 했고, 전체가 노란색인 쥬우야오비(中夜帯)는 메이와(明和)에 들어서 당시 화류계에서 나온 유행이며, 하오리(羽織)는 엔코우(延享)년 사이부터 게이샤가 입어 유행했지만 오늘날 게이샤들은 연회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마에가게(前垂)의 유행도 오차야(茶屋) 유곽의 하녀인 나카이(仲居)에서 시작되었고, 머리에 마게(鬘)를 도입한 것, 여자의 트레머리에 꽂는 보석, 쇠붙이, 천등으로 만든 장식인 네가게(根掛)도 게이샤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머리를 다듬는 미즈가미(水髮)로 하는 것은 후가가와게이샤가 분카분세이(文化文政)무렵에 한 것이며, 오늘날 다메(伊達)의 요코

쿠시(横櫛)는 3대 키쿠고로우(菊五郎)인 궁녀 오토요(お豊)라는 게이샤출신이 머리가 단발머리였던 것을 숨기기위한 것을 모든 부인들이 흉내내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외에 앞것을 올려 뒤로 젖혀서 목덜미가 나오게 입는 방식인 누끼에몬(抜衣紋), 흰 이(齒), 오비를 뒤로 묶는 것, 에도즈마(江戸縷)라고 하는 걸감과 옷단의 안쪽에 대는 천을 같은 감으로 만드는 것을 유행시킨 것도 게이샤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글쫄글한 비단인 짜리멘(縮緬)을 이용한 것도 분세이(文政)시대의 게이샤이다.

게이샤의 손에 유행권이 남아있던 당시 이 게이샤풍의 유행한 후원자는 게이샤출신의 부인들이며, 게이샤풍은 사교계에 영향을 미쳐 널리 세간에 퍼지게 되었다.

IV.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특징과 복식

1. 영화의 특징

사무라이와 함께 게이샤는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각기 일본의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며 극단성과 선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몸과 예술을 하나로 엮어 팔았던 어느 게이샤의 이야기이다.

영화는 1980년대 후반 출간된 실제 게이샤의 회고담을 토대로 한 원작을 영화화했지만 다국적 캐스팅과 할리우드 자본으로 창조되어 일본 문화의 속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제78회 아카데미 의상상과 미술상을 수상한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Allan Spielberg)가 제작을 맡고 <시카고>의 롭 마셜(Rob Marshall)이 감독을 맡았다. LA 근교에 1930~40년대 어둡고 축축한 일본 골목길과 좁은 다다미방, 화려한 사원 등 거대한 교토의 기온의 거리를 재현했고, 흩날리는 벚꽃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까지 4계절을 담은 네가지 색채의 초대형 세트를 제작했으며 역사학자의 고증과 감수를 거쳐 20세기 초반의 시대상을 완벽 재현하였다.

의상감독인 콜린 앳우드(Colleen Atwood)가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어낸 화려한 기모노처럼 <게이샤의 추억>은 역사를 재현하는 대신 환상으로 치환해내고 있다. 콜린 앳우드는 집한 채보다 비싸고 1벌 만드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하는 기모노를 각 캐릭터의 개성, 지위에 맞춰 계절별로 다른 250벌의 의상을 제작하였다.

원작소설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지 9년, 순제작비만 8천5백만 달러(약 900억원)이 투입된 <게이샤의 추억>은 게이샤역의 효율적인 수련 과정을 위해 실제로 일본에서 게이샤로 살았던 최초의 외국인 게이샤가 기본 품행에서부터 사미센 연주까지 모든 과정을 여배우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실제 게이샤 훈련 과정과 똑같이 최대 20kg에 달하는 기모노 의상을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앉고 일어서는 동작 연습은 물론 섬세한 사미센 연주법까지 게이샤생활의 재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2. 영화의 줄거리

바닷가 오두막집에 살고 있던 신비로운 푸른 회색빛 눈동자를 지닌 소녀 치요는 가난 때문에 언니와 함께 교토의 게이샤촌으로 팔려가게 된다. 자신이 게이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니타 오키야에서 그녀를 시기하여 함정에 몰아넣는 게이샤 하츠모모에게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서도 유일하게 친절을 베풀어준 회장을 마음에 담고, 게이샤가 되어 다시 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어느 날 하츠모모의 라이벌인 마메하의 수체자가 되고 6개월간 안무, 음악, 미술, 화법 등 다방면에 걸친 혹독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게이샤 '사유리'로 화려하게 거듭나게 된다.

사유리는 유명한 게이샤가 되어서 니타오키야의 양녀가 되어 후계자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게이샤들도 강제로 오사카로 보내지려던 순간 회장의 도움으로 3년 동안 산골 염색공장에 숨어지내게 된다.

사유리는 은근히 그녀를 사모하는 기업가 노부의 부탁으로 점령군 미국인대령에게 전력 사업권을 따기위해 교토의 게이샤생활로 돌아오

게 된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미군의 입성으로 다시 만나게 된 사유리와 회장, 비로소 사유리는 그녀의 후견인이 회장이었음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3. 중심인물의 복식

게이샤하면 떠오르는 것이 화려한 문양의 기모노와 목덜미까지 하얗게 분을 바른 화장과 목탄으로 그려 넣은 눈썹, 그리고 붉은 입술이다.

<게이샤의 추억>의 기모노는 500년 된 교토의 기모노 공방과 함께 작업했지만 맛밋했던 기모노의 전통 라인과 다르게 여체의 곡선을 드러내도록 디자인되었고 전통적인 기모노에 현대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또한 넓은 오비를 매어서 몸매를 감추는 전통 기모노는 작고 타이트한 오비로 배우의 몸매를 잘 드러내도록 변형되었다.

1) 치요

가난한 어촌 소녀 치요의 삶에 드리운 첫 번째 운명은 가난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두 번째 운명은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자신에게 따스한 친절을 베풀어준 회장을 만나 스스로 게이샤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니타오키야에 팔려가 하녀생활을 할 때는 중

아리 길이의 회색 기모노에 좁은 폭의 오비를 묶지 않고 끼워 넣는 코무오비(込帯)를 하고 있으며 머리는 뒤로 땡아내렸으며 나막신인 게다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6>은 허드렛일을 할 때 넓고 거추장스러운 소매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다스끼(襷)를 등 중심부분에 X모양으로 교차시켜 왼쪽 어깨 앞에서 한쪽 나비무음으로 묶은 모습이다.



<그림6> 다스끼

게이샤가 되기위한 교육이 시작되자 치요는 수련생들이 입는 푸른색과 흰색의 문양이 들어간 홀겍의 유카다를 착용하고 검은색 오비를 뒤쪽에서 작은 리본매듭인 하나분꼬무스비(花文庫結)로 매고 있다. 하츠모모의 모함으로 게이샤 교육이 중단되던 중 마메하의 도움으로 게이샤 훈련을 다시 받게되었을 때도 흰색과 회색의 문양이 들어간 유카다를 착용하고 있는데 머리는



<그림7> 치요의 복식

<표2> 치요의 복식특징

구분	장소	시간	복식	오비	머리	장식	기타
#1	어촌 요로이도	9세, 겨울밤	발목길이 회색 통수	좁음, 갈색 코무오비(込帯)	한가닥 묶음	맨발	
#2	기온 니타오키야	9세 아침	종아리길이 밝은 무지회색	가로줄무늬 오렌지색	한가닥 떨어내림	검은색 다비 게다. 남색 다스끼	
#3	교육소	아침	진녹색+흰색 화살깃털문양	검정 나비매듭	한가닥 떨어내림	흰색 다비 게다	
#4	하츠모모방	밤	종아리길이 밝은 무지회색	가로줄무늬 오렌지색	한가닥 떨어내림	회색줄무늬 어깨술	
#5	니타오키야 마당	아침	종아리길이 밝은 연두색	세로줄무늬 자주색	한가닥 떨어내림	흰색 다비 게다	
#6	니타오키야 하녀방앞	밤	종아리길이 회색	세로줄무늬 벽돌색	한가닥 떨어내림	흰색 다비 게다	
#7	시라가와 다리 위	11세 낮	종아리길이 회색	가로줄무늬 오렌지색	한가닥 떨어내림	흰색 다비 게다. 다스끼	회장과 첫 만남
#8	니타오키야	14세 겨울	발목길이, 회색 작은 격자무늬	세로줄무늬 진회색+흰색	한가닥 떨어내림	흰색 다비 게다	
#9	마메하 오키야 앞	14세 겨울	흰색 속옷, 회색 나가주반 바닥길이 흰색+베이지 가는 줄무늬, 녹청색 하오리	인디안 핑크색	마게(鬘)	흰색 다비 게다	
#10	게이코 교육소	14세 낮	흰색+회색 작은볼결+나뭇잎무늬	검정 나비매듭	마게(鬘)	흰색 다비 게다	
#11	마메하 방	14세 낮	흰색 실크 속옷	호소오비(世帯)	피발	코우가이(笄)	
#12	춤 공연장	14세	벚꽃무늬 연핑크색, 붉은색 반깃	핑크바탕+진핑 크+금색 모란꽃 무늬	와레시노부	네가께(根掛) 코우가이(笄) 카노코도메 칸자시(簪)	
#13	치요 방	14세 밤	큰 꽃무늬 잡옷	호소오비(世帯)	와레시노부	카노코도메	
#14	기온 거리	14세 낮	연핑크색바탕+노랑꽃 자수	연노랑+자주색 무늬 다라리노 오비 (だらりの帯)	와레시노부	카노코도메 오비지메 오비도메 코우가이(笄)	

상투스타일의 마게(鬘)이며 14세 이후의 머리스타일은 엷은머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치요가 니타오키야에서 하녀생활을 할 때는 주로 종아리 길이의 무채색의 기모노차림이었

다가 정식으로 게이샤 훈련을 받게 된 이후에는 발목길이의 핑크색 기모노와 코우가이, 칸자시 등으로 장식된 와레시노부 스타일의 머리스타일로 여성스러운 마이코의 모습을 보인다. 어린

시절 치요의 복식은 장면구분에 따라 <표2>로 작성하였으며 <그림7>에서는 복장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정리하였다.

2) 사유리

세월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게이샤 수업을 받게 된 치요는 하츠모모의 구박과 질시를 받으며 그녀의 라이벌인 최고의 게이샤 마메하의 도움으로 진짜 게이샤가 되고 사유리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견습 게이샤로 데뷔하는 사유리는 하얀 얼굴 화장에 머리에는 실크 꽃송이 칸자시를 하고 노랑바탕에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우치가게를 착용하였으며 노란색 바탕에 큰 꽃무늬가 들어간 오비를 마이코의 상징인 다라리노(だらりの) 오비스타일로 매고 있다.

마이코의 데뷔를 뜻하는 단어인 ‘미세다시’는 개업이라는 뜻으로 전문직으로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몇 칠 동안 미세다시 의상을 입고 수 백 곳이 넘는 곳을 인사 다니게 되며 그 후 데뷔 2단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새 의상을 갈아입는다.

정식게이샤가 되면 견습생들의 붉은 에리가 아닌 하얀 에리를 달게되며, 긴소매의 기모노를 입고 오비를 늘어뜨린 견습생의 모습이 아닌 좀 더 단순하면서도 더 여성스러운 면모를 보인다.

남자와 처음 동침하는 의식인 ‘미즈아게’를

치르면서 마이코의 처녀성을 경매에 부치는데 상대를 결정하기위해 벌인 공연에서 사유리는 30cm 높이의 게다를 신고 붉은 속옷 위에 흰색의 긴 기모노를 입고 춤쳤으며, 미즈아게가 끝나자 무늬 있는 띠 대신에 붉은 실크 띠를 타래 머리 아랫부분에 댔다.

중일전쟁에 이어서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여 전쟁이 장기화되자 물자의 결핍으로 의복의 구입도 티켓제가 되고 의류구입이 힘들어지자 여성들은 지니고 있던 기모노를 고쳐 통수(筒袖)의 기모노와 몸빼를 조합하여 착용하였다. 사유리 역시 화려한 게이샤의 삶에서 벗어나 평범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갈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가 있는 하오리와 허리길이의 고시키리(腰切), 진회색의 몸빼, 남색의 마에다데(앞치마) 복장에 쪽진 머리스타일이었다.

청회색 신비한 눈동자와 함께 물의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 사유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결 무늬 기모노로 마지막 장면에서 사유리가 입은 푸른 회색빛 폭포 줄기가 쏟아지는 기모노는 최고의 게이샤가 되기 위해 거친 운명을 헤쳐나가고 금지된 사랑을 간직해온 사유리라는 캐릭터 자체였다.

게이샤 데뷔 이후의 기모노 색은 회색의 눈동자를 고려한 회청색이나 녹두색, 연보라색, 연하늘색, 연회색, 은회색등 전반적으로 화려한 정식 기모노복장이었으며 오비 또한 주로 큰 꽃문양



<그림8> 사유리의 복식

<표3> 사유리의 복식특징

구분	장소	시간	복식	오비	머리	장식	기타
#1	니타오키야	14세 밤	붉은 속옷. 노란색바탕의 우치가게. 붉은색+흰꽃무 늬 반깃.	노란색+큰꽃무늬. 다라리노 오비	오후쿠스타일	오코보 흰색다비 꽃 간자시 카노코도메	견습게이사 테뷔
#2	스모경기장	낮	회청색+꽃자수 빨간무늬 반깃	녹청색+금색 다라리노 오비	오후쿠스타일 변형	쿠시(櫛) 칸자시(簪) 카노코도메 오비지메, 도메	
#3	이치리키 찻집	밤	녹두색+꽃무늬. 아이보리색 반깃	연노란+나비무늬 다라리노 오비	오후쿠스타일 변형	칸자시(簪) 카노코도메 오비지메, 도메	
#4	공연장	밤	붉은 속옷. 흰색 겉옷	호소오비(世帶)	피발	맨발. 30cm높이 오코보	독무
#5	공연장 정원	밤	연보라색 코몬	연하늘+흰색, 핑크색, 남색꽃 다라리노 오비	오후쿠스타일	쿠시(櫛) 칸자시(簪) 카노코도메 오비지메, 도메	
#6	남작별장	낮	하늘색+핑크색 꽃무늬	금색+주홍모란꽃 무늬. 다라리노 오비	오후쿠스타일	꽃 칸자시 흰색다비. 센스 오코보 지우산 오비지메, 도메	양장과 기모노공존
#7	니타오키야	밤	문장+연하늘색. 붉은색+금색무 늬 반깃	살구색 타이코무스비	오후쿠스타일	오비지메 쿠시(櫛). 칸자시(簪).	후계자결정
#8	사원근처 여관방	1935년 15세. 밤	붉은 속옷	호소오비(世帶)	오후쿠스타일	칸자시(簪). 카노코도메	미주아지 의식
#9	사유리방	밤	연핑크색	연노랑색 타이코무스비(太 鼓結ひ)	오후쿠스타일	오비지메, 도메 칸자시(簪)	
#10	기온거리	1943년 23세. 겨울	연회색. 회색 하오리	베이지색	마게(鬘)		게이사구역 폐쇄
#11	가모강근처	1948년. 겨울	갈색+검정색 하오리. 고시끼리 진회색 몸빼. 남색 마에다테		쪽진머리 스타일	회색 머리수건 스카프	
#12	아미미섬행 비행장	낮	은회색. 흰색+은회색꽃 자수반깃	은회색 타이코무스비(太 鼓結ひ)	오후쿠스타일	칸자시(簪). 카고(籠).	
#13	별장 파티장	낮	흰색+핑크색꽃+ 검정무늬	호소오비(世帶)	마게(鬘)	칸자시(簪).	
#14	정원	낮	노랑색+단풍무 늬. 흰색 반깃	연노랑색+꽃무늬. 타이코무스비	오후쿠스타일	오비지메, 도메 칸자시(簪)	



<그림9> 펌프킨의 복식

이 들어가고 오비도메와 오비지메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것이었다. 머리는 오후쿠스타일에 쿠시와 각종 칸자시로 장식하고 있다.

게이샤 데뷔이후의 사유리의 복장은 <표3>으로 따로 정리하여 견습 게이샤 시절의 치요 복식과 비교되도록 하였으며 <그림8>에는 시간의 흐름대로 성숙해지는 사유리의 복식을 캡춰하여 정리하였다.

3) 펌프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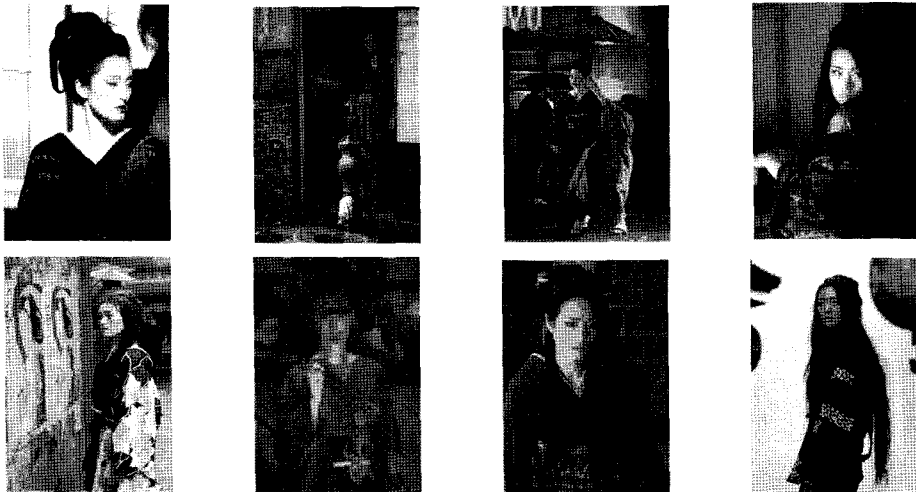
치요와 함께 니타오키야에서 견습 생활을 한 펌프킨은 얼굴이 포동포동한데다 호박줄기처럼 혀가 말려 나와있어 붙여진 별명이다. 하츠모모와 자매연을 맺고 니타오키야의 후계자를 꿈꾸지만 사유리에게서 밀려나 앙심을 품게된다.

견습 게이샤로 데뷔하는 펌프킨의 복장은 니

타 오키야라는 문장이 새겨진 검은 기모노에 건포도색과 금빛 나는 오비를 매고 오키코보를 신었으며 머리는 관자놀이에서부터 둥글게 뒤로 빗어 넘긴 쪼개진 복숭아라는 뜻의 ‘모모와레(桃割)’라는 어린 게이샤 머리모양을 하였다.

메이지시대의 녹명관(鹿鳴館)시대라고 하는 열광적으로 양장을 착용하던 시대가 지나자 상류 귀족 사회에서는 양장 착용풍속이 정착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양장을 착용하게 되었다. 전쟁이후 펌프킨도 미군들을 상대로 양장차림을 하며 성을 파는 신분으로 변한다.

사유리에게 오키야의 후계자자리에서 밀려나 원망을 품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춰 살아가려는 낙천적인 성격답게 의상도 밝은 노랑과 주황, 연두색을 바탕으로 하고 전쟁 후에는 원색의 기하학적인 패턴의 기모노를 착용하는 등 자유분방한 면모를 보인다<그림9>.



<그림10> 하츠모모의 복식



<그림11> 마메하의 복식

4) 하츠모모

하츠모모는 게이샤라는 운명 안에서 살아간 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으며, 금지된 정사를 오키야 안에서 나눌 정도로 대담했다. 그녀가 후계자 계승실패 후 미친 듯 불을 지르고 오키야를 나가버리는 것은 추방이나 몰락보다는 오히려 해방에 가깝다.

질투와 복수의 화신 하츠모모에게는 실제 게이샤보다 강한 컬러와 패턴으로 장식된 기모노가 입혀졌는데 약간 긴 소매 길이마저 반항적이고 강렬한 하츠모모의 성격을 반영하도록 배려되었다.

게이샤는 누군가의 행운을 빌어주며 등 뒤에서 불꽃을 일으켜주기 전에는 밤에 외출하지 않는 미신이 있다. 영화 초반부 하츠모모가 연회에 나가는 장면에서도 등 뒤에서 네모난 부싯돌을 부딪쳐 불꽃을 일으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츠모모의 기모노는 검정색 바탕에 금색문양을 넣고 붉은색 오비를 맨 강렬한 인상의 복장이었다.

영화 속에서 하츠모모는 그의 성격을 표현하듯 검정색, 빨강색, 자주색등 시종 강렬한 색상과 대담한 패턴으로 꾸며지며 길게 내려뜨린 하츠모모의 현대적인 헤어스타일도 그런 성격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10>.

5) 마메하

마메하는 하츠모모의 라이벌이자 하츠모모의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회장의 뒷받침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는 굳센 여성이며 사유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다. 높이 들어올린 마메하의 전통적인 헤어

스타일처럼 그녀의 복장은 사유리처럼 여성스럽거나 밝지도 않고 하츠모모의 복장처럼 화려하지도 않은 채도 낮은 연두색, 보라색, 어두운 자주색등 차분한 색상과 작은 문양의 기모노차림으로 그녀의 단아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그림11>.

V. 결론

게이샤는 신비스러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일반인들은 게이샤의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한 그들만이 갖고 있는 품위나 품격 같은 것에 외경심을 품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게이샤 복장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51년 교토에 게이샤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게이샤는 일본 여성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 그 존재자체가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류계는 거의 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외견상은 옛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일본 풍속의 유지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둘째, 게이샤는 유행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다양한 의복과 장식을 유행시켰는데 가령

하오리(羽織), 마에가게(前垂)의 유행과 코무오비(込帯), 심 없는 한쪽 오비(帶), 쥬우야오비(中夜帶), 오비를 뒤로 묶는 것등의 착장요소와 효우고마게(兵庫鬘), 시마다마게(島田鬘), 카츠야마마게(勝山鬘), 쿠시마게(櫛巻) 등의 헤어스타일, 그 외에 향낭인 타가소데(誰か袖), 하나칸자시(花簪), 요꼬쿠시(横櫛)같은 장식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전통 현악기인 사미센 연주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는 게이샤의 의상, 화장, 동작에는 예외없이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고, 마이코의 연차에 따라서도 헤어스타일과 복장에는 차이가 있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초년의 마이코는 와레시노부 스타일이고 선배의 경우는 오후쿠스타일을 하며 앞머리쪽에 쿠시도 꽃아 장식하며, 정식게이샤는 시마다마게(島田鬘)를 한다.

또한 게이샤의 타이코 무스비와 달리 마이코는 7m에 가까운 오비를 다라리노 오비스타일로 묶어 늘어뜨리는데 특별한 조형미가 있으며 금은사가 직조되어서 마이코의 상징처럼 보이는 중요한 장식품이다.

나가주반에 붙여 장식하는 반깃의 색상도 초년생이 빨간색 바탕에 자수한 것이라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바탕의 붉은 색이 적어지고 점차 흰색의 깃이 된다.

넷째, 게이샤는 마치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넣듯이 얼굴과 목, 어깨까지 하얗게 칠하고 눈, 코, 입술라인을 새로이 그려 넣는 독특한 화장술로 유명하다.

게이샤는 격이 높을수록 화장을 연하게 하는데 하츠모모나 마메하, 유명한 게이샤가 된 다음의 사유리도 영화가 진행될수록 화장이 점점 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다섯째, 영화 속의 주인공인 치요는 하녀시절, 견습 게이샤인 마이코, 정식 게이샤의 복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데 기모노의 길이와 소재, 머리 장식등은 점차 길고 화려해지며 다양해지지만 화장은 오히려 변화를 보인다.

강한 성격인 하츠모모의 기모노는 색상과 패턴 모두 강렬한 인상이며, 이성적인 성격의 마메하는 차분한 색상과 패턴의 기모노로 각기 인물의 성격을 살리고 있다.

기모노를 입혀주는 장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남자도 함부로 만질 수조차 없었던 게이샤의 기모노는 일본인들이 이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여성미에 가장 근접한 존재이다. 또한 게이샤는 여성 중에서도 미의식이 뛰어나도록 훈련받은 존재이며 그 훈련의 결과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화장과 의상, 몸짓 하나까지 깃들여 있다.

외모나 옷차림뿐 아니라 누구와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더라도 막힘이 없도록 해박한 지식과 화법도 갖추어야 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에 더욱 신비로운 게이샤는 미모와 천부적인 재능에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와사키 미네코 랜디 브라운, 윤철희 역 (2002). *게이샤*. 서울: 미다스북스, p.8.
- 2) 高橋晴子 (2006). *近代日本の身装文化*. 東京: 三元社, p.282.
- 3) GEO (1996.10). p.83.
- 4) 나카니시 레이. 양윤옥역 (2002). *게이샤의 노래*. 서울: 문학동네, p.32.
- 5) 林田龜太郎 (1929). *藝者の研究*. 東京: 潮文閣, p.47.
- 6) 平凡社 (2004). *世界大百科事典* no.8, p.507.
- 7) 김태영 (2005). *일본문화의 산책*. 서울: 보고사, p.203.
- 8) 동아세계백과사전 2 (1988). 서울: 동아출판사, p.234.
- 9) 林田龜太郎 (1929). *Op. cit.*, p.38.
- 10) 田村榮太郎 (1937). *日本風俗史*. 東京: 三笠書房, p.205.
- 11) 平凡社 (2004). *Op. cit.*, p.507.
- 12) 고바야시 다다시. 이세경 역 (2004). *우키요에의 美*. 서울: 이다미디어, p.189.
- 13) 표경조 (1965). *여성의 역사. 아세아여성연구* Vol. 4, p.184.
- 14) 이와사키 미네코 (2002). *Op. cit.*, p.12.
- 15) 矢野恒太 (1913). *藝者論*. 東京: 博文館, p.165.
- 16) 田村榮太郎 (1937). *Op. cit.*, p.209.
- 17) 道明 三保子 監修 (2005). *すぐわかる きもの美*. 東京: 東京美術, p.89.
- 18) 井筒雅風. 李子淵 (2004). *日本 女性服飾史*. 서울: 경춘사, p.102.
- 19) 高田俊男 (1995). *服装の歴史*. 東京: 中央公論社, p.275.
- 20)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

복식. 서울: 교문사, p.56.

- 21) 井筒雅風. 李子淵 (2004). Op. cit., p.127.
- 22) 大江戸探險隊 (2003). 大江戸暮らし. 東京: PHP 研究所, p.57.
- 23) 全国着物観光ガイド-舞妓体験, 和服観光の情報サイト. <http://maiko.littlestar.jp/>
- 24) 林田龜太郎 (1929). Op. cit., p.371.
- 25) 道明 三保子 監修 (2005). Op. cit., p.106.
- 26) 나카니시 레이. 양운옥역 (2002). Op. cit., p.31.
- 27) 이와사키 미네코 (2002). Op. cit., p.211.
- 28) 全国着物観光ガイド-舞妓体験, 和服観光の情報サイト. <http://maiko.littlestar.jp/>
- 29) 이와사키 미네코 (2002). Op. cit., p.303.
- 30) 大江戸探險隊 (2003). Op. cit., p.53.
- 31) 田村榮太郎 (1937). Op. cit., p.208.
- 32) 林田龜太郎 (1929). Op. cit., p.184.